

NEWS LETTER

2020년 6월 29일 Vol. 376

동국대학교의료원 산학연병(産學研病) 강화

동국대학교의료원은 지난 6월 19일 동국대학교 고양바이오메디캠퍼스 산학협력관 3층에서 연구자와 기업 간의 기술사업화 추진을 위한 상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상담회에서는 연구자와 기업 간 기술사업화를 위해 대상 기술에 대해 기초·원천 기술의 사업 활성화 방안 마련과 상호 교류를 위해 마련된 자리로 관련 제약업체 및 의료기기 업체 20여 곳이 참여했다. 이번에 발표된 기술은 △안구 내에서 일정하게 약물 투여가 가능한 안과용 약물전달체(동국대학교일산병원 안과 박철용 교수) △생약재 혼합 추출물을 사용한 여성 폐경기 증후군 치료제(동국대학교일산한방병원 한방여성의학과 김동일 교수) △오수유 추출물을 포함하는 난독성 및 조기난소부전 치료용 조성물(동국대학교일산한방병원 한방여성의학과 김동일 교수, 동국대학교 한의학과 이주희 교수) △부갑상선 기능저하증에 효과적인 개선/치료용 약학조성물(동국대학교일산병원 내분비내과 최한석 교수)이다.

기술소개에 이어 참가한 20여 개의 기업체 관계자들은 연구자와의 기술이전 및 공동연구개발 등을 주제로 상담을 진행했다.



신경과 김남희 교수, 코로나19 비대면 검체 채취 원격 로봇 개발

동국대학교일산병원 신경과 김남희 교수는 한국기계연구원 대구융합기술연구센터 의료기계연구실 서준호 박사 연구팀과 함께 원격으로 환자의 상기도에서 검체를 채취할 수 있는 원격 로봇 시스템을 개발했다. 의료진은 환자의 콧구멍과 입, 스왑의 위치를 카메라 영상으로 확인하면서 로봇을 직접 작동할 수 있는데, 특히 스왑이 삽입될 때 발생하는 힘을 의사가 원격에서도 모니터링 할 수 있어 검체 채취의 정확도와 안전성을 높일 수 있다.

이를 통해 코로나19와 같이 전염성이 강한 고위험 바이러스 검체를 채취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의료진 감염 위험을 현저하게 줄일 수 있다. 동국대학교일산병원 신경과 김남희 교수는 “비대면 검체 채취를 통해 의료진의 감염 위험을 낮출 수 있으며, 검체 채취 시 보호장비 착용에 따른 의료진의 불편감도 최소화 할 수 있다”며 “이와 더불어 스왑이 삽입될 때 압력을 감지하고 조절하여 환자의 불편감을 최소화 할 수 있어 앞으로 감염병 진단에 임상적 활용도가 매우 클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삼복첩으로 ‘겨울 감기’ 미리 예방하자

동국대학교일산한방병원은, 7월 초복을 앞두고 겨울철 호흡기 질환 예방관리를 위해 삼복첩을 시행할 예정이다.

삼복첩은 ‘동병하치(冬病夏治, 겨울병을 여름에 치료)’를 목적으로 초복, 중복, 말복의 삼복일 전후로 한약재로 된 약물을 혈자리에 붙여 겨울철 호흡기 질환을 여름에 미리 예방하는 오랜 역사를 가진 효과적인 한방치료법이다.

치료 방법은 청심환 같은 알약 형태의 한약을 면역증강에 관련된 혈자리에 붙이는 방식으로 특히, 겨울철 호흡기 질환에 취약한 24개월 이상 아동과 노약자에게 더욱 효과적이다. 한방소아청소년과 민상연 교수는 “삼복첩은 여름철에 건강을 지키는 오랜역사와 전통을 가진 치료법이다”고 설명했다.

동국대학교일산한방병원에서는 효과가 검증된 전통적인 방식을 현대화하여 환자에 시술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삼복첩에 대한 효과가 국제 학술지[European Journal of Integrative Medicine 10 (2017) 1 - 7]에 보고된 바 있다.



호스피스·완화의료센터 ‘의뢰 환자 증례’ 세미나 개최

동국대학교일산병원 호스피스·완화의료센터는 지난 6월 22일 센터 내에서 ‘의뢰 환자 증례 세미나(Refer Cases Seminar)’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지난해 5월 호스피스·완화의료센터 개소 이후 약 1년간 원내 의뢰를 통해 호스피스 돌봄을 받은 환자사례에 대한 발표와 경과보고를 위한 자리로 각 진료분야 전문가들이 모여 다양한 의견을 주고받았다. 또한 실제 호스피스·완화의료센터에서 진행되고 있는 정서적, 사회적, 영적 돌봄 등 환자들의 만족도와 유족의 소감에 대한 내용을 함께 공유했다.

서상연 호스피스·완화의료 센터장은 “앞으로도 말기 암 환자는 물론 가족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호스피스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향상을 위해 온라인 홍보도 함께 진행할 예정이다. 그동안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교수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세미나에는 혈액종양내과 이현정 교수와 김달용 교수를 비롯해 호흡기내과 윤영순 교수, 정윤정 교수, 강윤성 교수, 산부인과 임가원 교수, 소화기내과 조혜기 교수 등 10여 명이 참석했다.

